

화성도시공사,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설계용역 계약 체결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는 (주)서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정임, 이하 서로아키텍츠), 공동응모사인 (주)탈 건축사사무소(대표 서지영)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사진=화성도시공사]

이번 계약은 지난 11월 설계 공모 당선에 따른 본 설계 계약이며, 서로아키텍츠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서 12월 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설계 전 과정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로아키텍츠는 ‘아흔 개의 봄’을 타이틀로 개인이 맞이하는 아흔 번의 봄을 형상화해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소규모 생활이 가능한 유닛 구조로 설계해 ‘시설이 아닌 집’을 계획했고, 요양시설의 이해도 측면에서 작품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공모에 당선됐다.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5863㎡ 규모로 건립될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는 화성시 최초의 시립노인요양시설이며 입소 정원은 요양원 100인, 주간보호센터 50인 등 총 150인이다.

김정임 서로아키텍츠 대표는 “요양시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이 장기간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발주처와 잘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실버드림센터가 공공 요양시설의 역할 및 미래 요양원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본 건립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